

30여명의 작은 집단, 시에선 '무서운 엄마들'로 불려

인천 시청이 '무서운 엄마'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부평 제4공단지역의 햇살 어린이집 자모회' 회원

3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단을 '무섭다'고 표현하게 데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

89년 5월15일 햇살 어린이집 처음 인천시 북구 청천동에 어설 때만 해도 자모들의 웅은 그야말로 '시큰둥' 이었고 한다. '아이를 잠시 보관해 니 고맙다'는 정도에 불과했는 것이다.

그런 자모들이 지역 부녀회 임과 연대하면서 후줄그레한 아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



▲ 햇살 어린이집 자모회에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 다함께 하는 운동회를 열기도 한다.

고 호주머니를 털어 공부방을 겸한 탁아방을 마련했다.

아이의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작된 이 움직임

이 자모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첫번째가 대부분 공장노동자로 맞벌이 부부로 피곤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한달에 한번 씩 자모회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회의를 통해 탁아방의 재정 · 운영 · 교육의 방향 · 행사프로그램 마련 등을 탁아방교사들과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기도 했다.

특히 탁아교육에 대해서는 탁아방 교사들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세세한 내용을 요구, '즐거운 진땀'을 빼기도 한다고 교사 이명숙(32) 씨는 말했다.

자모회가 활성화되기까지는 교사들의 숨은 노력이 컸다.

생활에 쫓겨 모르고 넘어가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빙해 토론하는 자모교육을 짝수 달에 마련한 것.

지난해에는 '성폭력과 어린이 성폭력', '유아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개선점',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문제', '환경공해로 인한 식품 오염의 실태', '의료보험의 문제점', '선거 바르게 보고 선택하기' 등의 교육을 받았고, 이제는 궁금증을 스스로 풀고자 노력하는 단계가 되었다.

또 하나 자연스럽게 발생한 프로그램이 있다. '15분 스피치'.

"우리는 거창한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려면 겁부터 나오. 그냥 수다 떨듯이 얘기하라면 끝이 없지만."

15분 스피치를 시도할 때 걱정하던 재권이 엄마 김순덕씨(31)는 이제는 자신이 해야 할 얘기를 간추릴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여성문제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는데 의외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배움에서 소외되고 공장으로 전전해야 했던 그만그만한 과거사를 털어놓음으로써 자괴감에서 해방된 것이다.

자모회 회원들은 지난해 탁아방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양말판매 등을 통한 수익사업도 벌였다.

또 시청을 방문해 비영리 탁아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요구해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인천시 예산에서 탁아방 재정을 공식적으로 삽입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자모회는 올해 중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연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어떤 사업이 나와 지역을 밝게 할지 기대가 모아진다.